

[보도자료]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조사연구”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황 정 미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86, 이메일: jhey@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최근 발간한 『한국인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으로 한국사회가 동질적 단일민족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외국인이나 이주자를 보는 한국인의 시각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특정 집단의 사람을 배우자, 친구, 이웃, 동료, 국민, 방문자 등으로 각각 받아들이는데 찬성 혹은 반대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며, 미국의 사회학자인 보가더스(Borgadus)가 개발한 이후 외국인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또는 편견 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세계화 시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 선진국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 새터민·조선족은 미국인 다음으로 가깝다고 응답

-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미국인·일본인·중국인, 외국인 이주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인 · 남아시아인 · 몽골인, 그리고 조선족 · 새터민까지 모두 8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 한국인들이 가장 거리감을 적게 느끼는 집단은 미국인(평균점수 2.08)이며 그 다음은 새터민(2.28), 조선족(2.48), 일본인(2.52), 동남아시아인(2.77), 중국인(2.78), 몽골인(2.82), 남아시아인(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 등, 2.90)의 순서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적은 것이며, 보가더스 척도에서 1점은 자녀의 배우자로, 2점은 친구로, 3점은 이웃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출신 외국인을 가깝게 느끼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동남 아시아인이나 몽골인, 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많이 갖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보다는 새터민이나 조선족과 같은 동포들을 더 가깝게 생각하지만 미국인만은 예외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거리감과 국가에 대한 거리감은 별개의 차원이므로 가령 미국사람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반드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0대, 대졸이상 고학력자는 미국인에 친밀감 뚜렷

60대 이상은 외국인을 멀게 느끼며 특히 일본인에 거리감 두드러져

- 사회적 거리감은 응답자의 연령별로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먼저 20대는 평균적으로 고연령층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인을 가깝게 느끼며(평균점수 1.94) 미국인과 친구로 지내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은 20대(2.48)가 전체 평균(2.28)보다 더 높다. 젊은 세대가 외국인에게는 관용적이지만 북한 출신의 새터민에게는 오히려 다소 배타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30대(2.15)와 50대(2.16)는 새터민을 상대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본인(3.37)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으며, 특히 대졸이상 학력자들은 미국인을 가깝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였다(1.96).

◇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에 대한 소원감 우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지나치게 선진국 중심, 특히 미국과 일본 중심이며, 반면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몽골인을 낯설고 소원하게 느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한-미, 한-일간 누적된 교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빈국 출신자, 특히 우리 이

웃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소원감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른 인종·민족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적 태도, 차이를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적 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